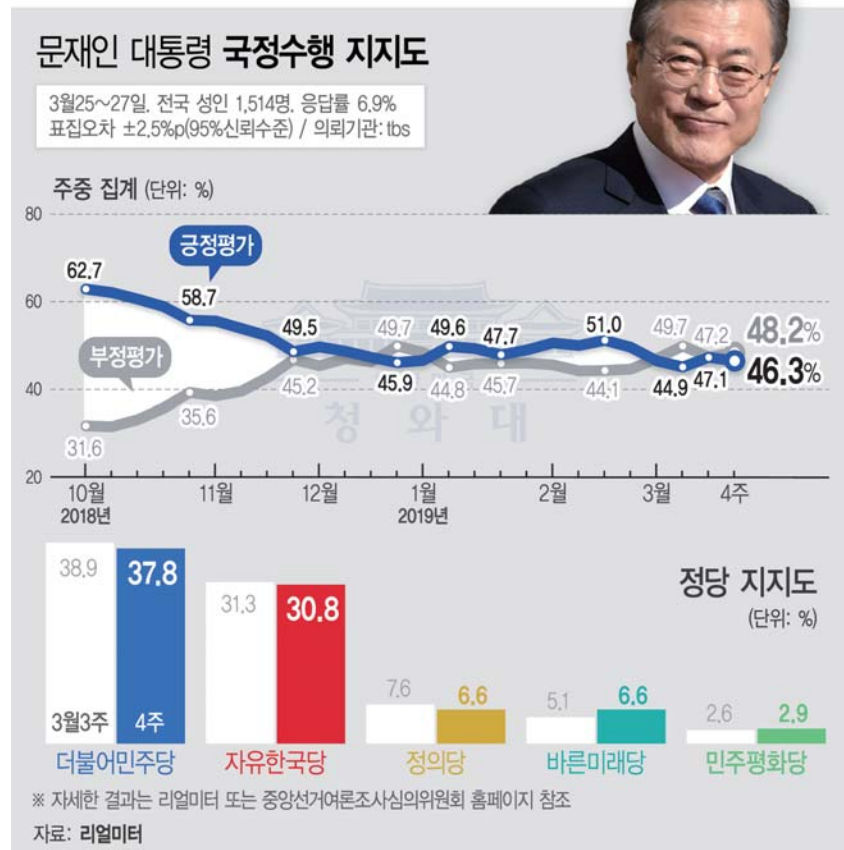


文 대통령 지지율 46.3%

전주 대비 0.8%p 하락...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영향미처

민주 37.8% · 한국 30.8% · 정의·바른미래 6.6% · 평화 2.9%



충, 대구·경북(TK)과 호남, 충청권, 서울,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40대에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0.8%p, 39.4%→28.6%, 부정평가 62.5%), 광주·전라(▼3.4%p, 66.2%→62.8%, 부정평가 32.3%), 대전·세종·충청(▼3.1%p, 49.0%→45.9%, 부정평가 51.0%), 서울(▼2.1%p, 48.6%→46.5%, 부정평가 47.2%)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7%p, 35.8%→41.5%, 부정평가 50.9%)에선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6.8%p, 58.4%→51.6%, 부정평가 43.2%), 60대 이상(▼2.6%p, 34.2%→31.6%, 부정평가 61.4%)에서 하락, 40대(▲3.7%p, 58.2%→61.9%, 부정평가 34.9%)와 20대(▲1.1%p, 45.7%→46.8%, 부정평가 44.4%)에선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0%p, 23.7%→15.7%, 부정평가 80.9%)과 중도층(▼2.4%p, 47.8%→45.4%, 부정평가 50.9%)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2.9%p, 71.1%→74.0%, 부정평가 23.1%)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1%p 하락한 37.8%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끊고 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주 대비 0.5%p 내린 30.8%를 기록했다.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6.6%, 민주평화당 2.9% 순으로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3.3%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 대비 0.8%p 내린 46.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5~27일 서울 동남권 19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상대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3월4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8%p 내린 15.7%로 집계됐다.

오른 48.2%(매우 잘못 32.5%·잘못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9%p 격차로 앞질렀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5.9%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림세는 서울 연속 이어진 인사청문회 정국 속 여야 공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국외 인사청문회가 27일 마무리됐지만, 야당이 전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내걸면서 장관 후보자 지질 논란이 확대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중도



이야기 나누는 홍영표·박지원·이정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野,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이구동성'...與 "비방·신상털이만"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외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은 28일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위원 후보자 7명 집행을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 다 부적격자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무자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놓는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비치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국무위원 8명을 임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린다"며

떻게 믿고 국정을 맡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한 뒤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7명 모두 부적격...지명철회 촉구·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 "흠결 있다면 반대 의견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돼"

자제가 국민의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사청문회 평가 회의를 소집해 "7개 부처 인사청문회에서 170회 후보자 사과 발언이 나왔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대표까지 모독했다. 장관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허위자료 제출, 위증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고위업무인 인사청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민원은 국회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도 요구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인사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조차 통과 못한 후보가 다수"라며 "자체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어

그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된다"며 "미구잡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비방과 신상털이만 있었던 청문회였다.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질문이 쏟아졌다"며 "정책 검증 없이 흥신소 청문회, 판금증 청문회만 있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박영선이 '김학의 얘기에 황 얼굴 빨개졌다' 해"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은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었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차관의 별장 삼정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황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영선이 전화로 길길대며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황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 이야기를 꺼내며 임명을 민류한 적 있다고 공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박 후보자 발언에 "턱도 없는 소리"라며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으나 이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 후보자에게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2013년 3월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CD 동영상, 녹음테이프, 사진을 입수

해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와 박남매 라 불릴 정도로 친했음을 알리며 많은 정보를 공유했고 김학의 동영상 CD도 이 중 하나임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박남매 아닌가 박영선 의원이 뭘 입수하면 제게 공유하고 제가 (입수) 하면 박영선 의원과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